

【논 문】

『압록강』에 드러난 식민 개발 서사의 이중적 의미 —전도된 승고미와 조건부 자율성을 중심으로—

우정덕*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수풍댐의 당대 표상과 '건설 성공' 담론
- III. 두 개의 '압록강'의 의미: 개발주의의 확산 혹은 조건적 국민화
- IV. 전도된 승고미의 대상: 수풍댐과 개발지로서의 만주
- V.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유아사 가쓰에의 『압록강』이 식민주의와 개발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내적 모순을 형상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 내 '식민주의의 개발주의적 확산'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수풍댐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수풍댐이 정치·문화·군사·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제국의 시각 아래 건설되었으며, 조선에서는 국가적 성공의 기념비로 표상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주인공이 수풍댐을 보고 난 이후 국민화를 내재화하는 과정이 당대 사회적 승인 획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작품에 나타난 '전도된 승고미' 개념을 통해 주인공의 국민화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서사 구조 및 인물 개연성과 충돌하면서 식민주의·개발주의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을 밝혔다.

본고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작품 『압록강』을 대상으로 식민지 말기 작품의 특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식민지 말기 유아사 가쓰에 작품 전반의 변화 양상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 국민대학교 국문과 박사수로

지닌다.

주제어: 『압록강(鴨綠江)』, 개발주의, 국민화, 만주 표상, 수풍담, 식민주의, 내선일체, 오족협화

I.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재조일본인 작가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의 장편소설 『압록강(鴨綠江)』에서 식민주의·개발주의적 주제를 전면화하면서도 식민주의·개발주의의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의 주제인 ‘식민지 개발의 확산과 그 정당성’을 상징하는 핵심 소재인 수풍담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포스트 콜로니얼 개념으로서의 탈구(dislocation) 개념과 칸트의 숭고미 개념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텍스트로는 1944년 일본에서 출판된 『鴨綠江』을 대상으로 하였다.¹⁾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는 식민지기 활발히 활동한 재조일본인 2세 작가로, 그가 조선에서 생활했던 것은 3세부터 18세까지의 시기이다.²⁾ 유아사 가쓰에는 경

1) 湯淺克衛 著, 白川豊 監修, 『鴨綠江』, 株式会社ゆまに書房, 2000.(湯淺克衛, 『鴨綠江』, 東京: 晴南社, 1944.) 동명의 연재소설이 『녹기(綠旗)』 1943.2-5월호, 7, 8, 10-12월호, 1944년 1월호에 연재되었다. 연재분과 텍스트로 삼은 단행본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동명의 연재소설이 1942년 10월부터 1943년 12월까지 일본잡지 『개척(開拓)』에 연재되었으나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2) 1910년 2월 26일 일본에서 출생했다. 1912년 3살 때 조선수비대에 합격한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 고성군 당동(唐洞)과 황해도 겸이포(兼二浦), 모친의 고향인 에히메켄(愛媛県) 야와타하마(八幡浜), 오오이타켄(大分県) 벳푸(別府), 사이키(佐伯) 등을 전전하였다. 1916년 7세가 되었을 때, 부친이 조선에서 순사 시험에 합격, 부친을 따라 경기도 수원으로 이주하였다. 같은 해 수원공립심상소학교에 입학하였다. 1922년 13세에 수원공립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립 경성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23년 14세 때 통학 생활을 하다가 기숙사에 입소하였다. 1927년 18세에는 경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로 이주하였다.

이 글에서 밝힌 작가의 생애, 그리고 작품 발표년도와 작품 발표면에 관해서는 湯淺克衛 著, 池田浩士 編, 1995 『カンナに』, インパクト出版社 의 작가 연보와 작품연도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이 책에서는 겸이포의 소개가 평안북도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고려학술문화재단의 박환 선

성중학교를 졸업한 18세 이후 일본으로 진학하였고 작품도 대부분 일본에서 발표하였다. 유아사는 25세 때 현상공모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처음 발표하게 된다. 1934년 일본잡지 『개조(改造)』의 제7회 현상소설에 응모한 3.1운동이라는 소재를 그린 「간난이(カンナニ)」는 당선 외 가작이 되었고 내용이 문제가 되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열·삭제되어 발표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작품의 반식민주의적 성격 때문에 비판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한편 권승혁은 박사논문에서 유아사 가쓰에의 「간난이(カンナニ)」(『文學評論』, 1935), 「불꽃의 기록(焔の記録)」(1935), 「하야마 모모코(葉山桃子)」(초출불명), 「대추(棗)」(1937), 「이민(移民)」(1935), 「심전개발(心田開發)」(1937)을 분석하였다. 그는 유아사 가쓰에의 작품이 피식민자인 조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드러내지만,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라고 보았다. 이는 그가 작품에서 보여주는 ‘내선융화’가 ‘황민화’에 가까운 것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³⁾

신승모는 “유아사는 조선, 특히 자신이 소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수원을 무대로 재조일본인의 정착 과정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상화한 작품을 다수 남겼다. 이 같은 작품 속 테마는 그 자신이 조선 이민 2세로서 자신의 ‘기원’을 표현한다는 자연스런 내적 동기에서 온 것이다. 특히 작가로서 유아사 가쓰에는 동시대 다른 일본인 작가들과는 변별되는 자신의 혼종적인 존재 의식을 뚜렷이 의식하고 이를 피력”⁴⁾했다고 서술하였다. 그의 작품에서는 조선적 요소와 일본적 요소, 식민주의적 요소와 반식민주의적 요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도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본고에서의 논의를 통해 초기 작품에서의 유아사 가쓰에의 작품의 성격이 식민지 말기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유지혜는 유아사 가쓰에가 「선구이민(先驅移民)」(1938)에서는 국가 정책에

생님이 곁이포의 소재가 황해도임을 알려주셔서 정정하였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3) 권승혁, 2006, 「유아사 가쓰에의 조선인식과 내선일체지향 연구: 조선, 조선인이 등장하는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4) 신승모, 2000,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재조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아연출판부, 25쪽.

의한 만주 이민의 모순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반면, 「청동(靑桐)」(1939)에서는 당시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가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기도 하였다.⁵⁾

유아사 가쓰에는 지속적으로 조선을 배경으로 한 내용을 작품에 그렸다. 작품에서 그가 다룬 내용에는 재조일본인의 이주와 적응 문제, 조선인에 대한 차별 문제, 식민지 2세대의 정체성의 형성의 문제⁶⁾ 등이 포함된다. 그는 재조일본인의 이주 후 적응과 생계의 어려움에 주목하는 한편 양 지역 간 이주의 바탕이 되는 산업구조의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시각은 「망향(望郷)」(1938),⁷⁾ 「낭(萇)」(1936), 「심전개발(心田開發)」(1937)⁸⁾ 등에서 드러난다.

5) 유지혜, 「유아사 가쓰에의 일제말기 국책과 주체성의 변화: 『편지』, 『청동』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75,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2025.

6) 신승모, 「조선시장이라는 시공간과 재조일본인 2세」, 같은 책.

7)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후키야 고스케는 러일전쟁에 중군한 뒤 만주와 조선에서 수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제대 후 조선에 정착해 식료잡화상을 연다. 오사카에서 떠돌며 생계를 꾸렸던 과거와 달리, 그는 조선에서 가게를 크게 성장시키며 아내 이토에와 딸 유미코, 차녀 아사코와 함께 생활한다. 한편 그는 재향군인회·청년단·상공회의소 등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유력 인물로 자리 잡는다. 공황기에도 사업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조선 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경쟁 업체인 이나바야와의 갈등, 재조일본인 청년들이 내지로 신부를 찾으러 가는 모습, 그리고 일본에 별장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고스케를 괴롭힌다. 그는 결혼 피로연에서 내지 중심적 태도를 비판한 뒤, 고스케는 강 하구에서 고기를 잡으며 정착을 다짐한다. 그리고 그는 젊은 아내의 유골을 조선에 묻기로 결심한다. 조선에서 자란 딸 아사코가 조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그물을 던진다.(湯淺克衛, 『カクンニ』、インパクト, 1995. 수록분 참조)

8)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타로는 거리의 풍경에서 최근 조선이 일본적으로 바뀐 모습을 본다. 중학 선배인 이이지마는 최근 일본이 갈 데까지 간 데 반해, 조선의 활기는 희망적 전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새 총독이 조선 민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것 등을 들어 총독을 칭찬한다. 타로는 변화하는 조선의 풍경이 5년 만에 가슴에서 소생하는 것을 느낀다.

타로와 이이지마는 경성의 바와 오텍집을 전전하며 예전과 달리 내선의 구분이 없어진 손님들을 인상 깊게 본다. 노래 역시 〈젊은 두 사람〉과 같은 일본 노래를 불렀다.

고향에서는 대자본을 투자한 섬유 회사가 생기게 됐다. 타로의 아버지는 저당 잡았다가 사게 된 땅이 공장 부지 근처라서 기뻐한다. 그러나 땅의 전 주인이 찾아와 호소하여 땅을 반 돌려주게 되었다.

광산 브로커를 아버지로 둔 '伊三子'는 아버지를 따라 오지로 가게 됐는데, 뜨내기가 많다는 등 광산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伊三子'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타로는 주막(조선식)에 들어간다. 주막 여자는 어린 시절 타로가 울면서 아침마다 신사(神社)에 올랐던 일, '대화혼'을 잊었다고

그러나 이주와 관련된 비판적 시각은 식민지 말기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에 의한 조선의 공업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진다.⁹⁾ 당시 식민주의·개발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의 긍정은 단편소설 「조춘(早春)」(1941),¹⁰⁾ 「압록강통신(鴨綠江通信)」(초출 불명, 작품집 『백계로인촌』, 1944) 그리고 본고의 주 텍스트인 『압록강(鴨綠江)』(1944)에서 드러난다. 선제적 작업으로서 본고에서는 이 중 『압록강(鴨綠江)』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가 적은 유아사 가쓰에의 식민지 말기 작품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

흔났던 일이 유명하다며 타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타로는 주막에서 소학교 동창들을 만난 후 매일 밤 주막에 다니게 됐다. 주막에 오는 일본인들은 사업에 실패해 행상을 하는 사람, 사철의 짠 급료를 받는 기관수, 마부, 철도공사 노가다꾼, 소를 파는 소상인 등이었다. 행상인은 조선의 상점이 너무나 보호받고 있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는 타로에게 도쿄에 가서 일본어를 배워 여공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일본에서 일하는 오빠가 보내 준 편지를 보여준다. 타로는 주소를 보고 ning마주이나 도로 공사를 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여자는 바타야(ning마주이)가 어떤 일이고 별이가 좋냐고 묻는다. (湯淺克衛, 1995, 『カンナニ、インパクト、수록분 참조』)

9) 전상숙, 2010, 「우가키총독의 내선융화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정책: 우가키 조선총독정치의 지배정책사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현상과 인식』 34(4), 41-54쪽.

10)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마에다는 2.26 사건 직후 그 복고성과 반진보에 충격을 받고 3년 만에 경성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마에다는 졸업하고 3년간 실업자의 무리에 끼어 반실업 상태 지냈다. 사귀던 여자는 야마토(大和)의 친가에 붙잡힌 뒤 병은 얻어 입원했다. 마에다는 원하던 일을 하게 되어 결혼했지만, 그 직후에 여자는 병세가 악화되어 죽었다.

서둘러 여자를 만나러 갔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한 마에다는 오오시마로 가서 얼마간 지냈다. 그는 거친 파도로 항구에 들어오려고 애쓰는 배를 보며 자신은 이미 거친 파도에 항복한 것이 아 닌가 하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이름과 같은 스미레호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 가마쿠라에 왔다. 지인인 H와 초대면인 K를 만나 하치만구우(八幡宮)로 갔다.

그 직후 2.26 사건이 발생하여 고향인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매일 같이 만주사변이나 비적토 벌을 위해 출정하는 병사와 배웅하는 사람들(조선인 포함)을 보러 간다. 그는 거기에서 소학교 동급생인 미즈노 타마모를 본다.

미즈노 타마모는 어릴 때부터 조선인들하고만 어울려 놀던 야성적인 아이였다. 그는 우체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일하는 타마모를 만난다. 타마모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조선적 냄새가 강하고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역에서 기모노를 입고 부인회 사람들과 차를 따라주는 모습에서는 내지의 냄새가 났다.

마에다는 신문기자인 지인에게 조선은 일거에 농업국가에서 근대적 가공산업지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선'으로 간다. 함흥, 흥남, 청진, 나진 등을 둘러본 마에다는 숙소에서 기획이 가까이있음을 느끼며 베개를 눈물로 적신다. (湯淺克衛, 1995, 『カンナニ、インパクト、수록분 참조』)

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그의 작품의 핵심적 소재인인 ‘개척’, ‘이식’, ‘경제 구조적 모순’ ‘차별’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식민지 말기에 식민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수풍댐의 당대 표상과 ‘건설 성공’ 담론

『압록강』의 서사는 단순화하면 조선인 주인공 히데아키의 ‘일본 국민 되기’ 여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향한 그의 정신적 여정은 그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다. 만주 개척촌을 떠나 사촌 순의를 만나러 조선에 온 그가 사라진 자신의 옛 고향을 방문하여 그 변화한 모습을 보는 것, 수풍댐을 견학하며 큰 충격과 감명을 받는 것, 사촌을 찾기 위해 숙부와 숙모를 방문하여 그들의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목격하는 것, 사촌이 사는 다른 마을의 모범적인 생활 습관과 농학적 지식을 이용한 농사에 감명을 받는 것,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조선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만주 개척촌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의 정신적 변화와 함께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국가의 농민(國家の百姓)”¹¹⁾으로서 자각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이자 원점이 바로 이 수풍댐 견학이다. 본고에서는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수풍댐의 건설 배경과 이와 관련한 당대의 담론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애론 무어(Aaron Stephen Moor)는 그의 저서 *Constructing East Asia*에서 일본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던 ‘총괄적 기술(Comprehensive technology) 계획’ 및 개발이라는 보편적인 틀을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핀다. 여기서 총괄적 기술 계획이란

11) 湯淺克衛 著, 白川豊 監修, 『鴨綠江』, 株式会社ゆまに書房, 2000.(湯淺克衛, 『鴨綠江』, 東京: 晴南社, 1944.), 81. 일본어에서 ‘百姓’이라는 단어는 농민을 의미한다.

기술적 시행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면들과의 상호작용을 계산하여 계획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 의한 만주의 도로 건설은 기술적 고려뿐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광범위한 국방, 안전, 행정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된다. 도로 건설에서 중국 노동자 고용은 그들이 ‘나쁜 무리’에 가담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지역과 경제의 안정에 공헌할 것으로 여겨졌다. 또 식수, 관개,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면 수로의 수가 증가하며 내륙의 상업은 활발해질 것이고, 일본을 향한 호의는 커질 것이라 기대되었다.¹²⁾

이러한 총괄적 기술에 대한 개념은 1937년부터 북중국과 만주에서 관개와 도시·지역 계획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수풍댐도 이러한 관점 하에서 이뤄진 식민지에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다. 수풍댐은 압록강을 따라 지어질 7개의 댐 가운데 하나로, 일본은 이 프로젝트로 만주와 ‘북선’ 사이의 압록강 하구 일대를 해안 도시 겸 산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 항구는 부동항으로서 천연 자원을 운송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높이 106.4m, 넓이 899.5m, 체적 311만m³에 달하는 이 중력식 콘크리트 댐은 워싱턴 주의 그랜드 콜리 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댐이었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건축된 이 댐을 완공하는 데에는 85만 톤의 시멘트와 약 2,50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했다. 1941년 8월 수풍댐의 발전이 시작되자 정부 관료와 공학자들은 이를 ‘일본 과학의 승리’라 부르며 축하했다.¹³⁾

당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뉴스영화에서 수풍댐은 일본의 과학기술의 개가이고, 규모 면에서 적국(敵國)이던 미국의 볼더댐¹⁴⁾의 용량에 필적하며 근대과학 전쟁에

12) Aaron Stephen Moor, 2013, *Constructing East Asia—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pp.71-75.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학 한국어문학부의 서재길 선생님이 작업 중이던 이 책의 초벌 번역을 제공해 주신 데 감사를 표한다.

13) Aaron Stephen Moor, Ibid., pp.150-153.

14)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강(江) 유역의 종합개발에 의해서 건설된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억m³의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댐, 1936년에 완성되었으며 ‘볼더댐’이라 불리다 제31대 대통령 후버를 기념하여 개칭되었다.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억m³. 애리조나·네바다 양 주(州)에 걸쳐 있으며, 콜로라도강 중류의 그랜드캐니언 하류, 암석사막지대에 있다.

서 미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영화 제작은 수풍댐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개발선전의 역할도 했다. 한편 이는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기초하여 '과학적 지배' 그리고 '전시체제와 전쟁'의 정당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¹⁵⁾

조선 내에서 수풍댐은 과학의 힘이자 일본의 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표상되었다. 기사 「나이아가라 방불-수풍댐 강우로 인하여 장관」에서는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의 구보타 유타카(久保田豊)의 발언이 실렸다. 그는 압록강 물이 불어나 현재 댐이 1초간 4천 톤의 수압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력으로는 120만 킬로와트의 발전 능력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그는 수풍댐을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유하여 그 장관을 전달한다.¹⁶⁾

완공 후 수풍댐은 국내외 주요 인사들의 시찰 코스로 자리 잡았다. 수풍댐의 발전식에는 조선 측 미나미 총독을 비롯하여 철도국장, 내무국장, 여신국장이 참석하였다. 만주 측에서는 경제부 대신, 교통부 대신, 만주 전업사(電業社) 총재가, '내지(일본) 측에는 일본 언제(堰堤)기술위원회 위원장, 쓰모리 시바우라 전기(津守芝浦電氣) 부사장, 미요시 전업사(三好電業社) 전무, 하야시 미나마쓰구미(林西松組) 사장, 고타니 미구미(小谷間組) 회장이 참여하였다.¹⁷⁾ 만주국 황제 푸이가 직접 시찰을 하기도 하였으며,¹⁸⁾ 아베 총리와¹⁹⁾ 일본의 양원 의원이 시찰하기도 했다.²⁰⁾

최대출력 135만KW의 발전, 임피리얼 계곡 방면으로의 관개, 콜로라도강 하류의 홍수 방지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과 함께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목적 댐이다.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1936년에 완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세계 제일의 규모였으며 건설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했다. 처음에는 '볼더댐'이라고 불렸고 댐 부근에 댐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볼더시티가 건설되기도 했다.

15) 김은혜, 2013, 「아시아 개발주의 원(原)풍경: 수풍댐 이미지」, 『한림일본학』 22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70-172쪽.

해당 논문에서 이 부분은 <국경의 댐, 압록강 수풍댐(國境のダム, 鴨綠江, 水豊ダム)>, 일본공영, 1937~1941, 30min, DVD.과 <조선에 있어서 대수력발전개발의 기록: 수풍댐 등(朝鮮における大水力発電開発の記録: 水豊ダムなど)>, 일본공영, 1942-01-01, 17min 33sec, VHS,映像의20世紀: 熊本収録映像 8-2, 열람권 NHK아카이브의 내용을 설명한 것.

16) 「나이아가라彷彿-水豊“땀”降雨로 因하여 壯觀」, 『毎日新報』, 1941년 06월 10일, 3면.

17) 「水豊の輝く發電式, 内鮮滿關係官民を招待, 来る廿八日現地で行行」, 『朝鮮新聞』, 1941년 09월 06일, 4면.

18) 「皇帝陛下水豊發電所御視察-宮内府發表」, 『毎日新報』, 1943년 05월 06일, 1면.

요약하면 수풍댐은 기술을 통해 동아시아 식민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치, 문화, 군사, 경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 아래에서 건축되었다. 수풍댐 건설은 일본뿐 아니라 조선 내에서도 커다란 기술적 성공이자 국가의 성공으로 표상되었다. 또한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일본의 세계적이고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여겨지면서 국내외 중요 인사의 시찰 코스가 되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조선인 히데아키를 “국가의 농민”으로 만드는 핵심적 요소가 수풍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수풍댐과의 조우가 식민지인인 캐릭터의 사적인 경험으로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하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두 개의 ‘압록강’의 의미: 개발주의의 확산 혹은 조건적 국민화

앞서 언급했듯이 『압록강』의 서사는 조선인 히데아키가 수풍댐과의 조우로 시작되는 여정을 거쳐 “국가의 농민”이라는 모범적인 ‘국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그러한 서사의 처음과 끝에 두 개의 ‘압록강’이 제시된다. 『압록강』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한 후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조선인인 히데아키(창씨개명 전 이름 최영장)는 만주국 내 개척촌을 떠나 잠시 고향에 돌아온다. 히데아키는 고향에 도착해 댐 공사로 변화된 압록강의 모습과 일변한 지형까지 바뀐 고향의 풍경에 압도당하면서 반발심을 느낀다. 그러나 히데아키는 후에 댐을 견학하며 압도감과 함께 국가(=일본)에 대한 귀속감을 느낀다. 그는 수풍댐 건설 담당자인 타도코로에게 자기도 수풍댐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만주 개척촌에 강에서 이어지는 수로를 만들어 논을 지으리라는 포부를 밝힌다.

히데아키는 사촌 순의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간다. 순의는 의탁하던 숙부 집에서 떠난 상태였다. 히데아키는 숙부 집의 구시대적 면모에 실망한다. 다시 순의를

19) 「水豊『댐』을視察 總督平北巡視第三日」, 『毎日新報』, 1944년 10월 07일, 1면.

20) 「兩院視察團 水豊댐 視察」, 『毎日新報』, 1944년 12월 11일, 1면.

찾아 황해도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는 기생인 듯한 여자가 조선인도 일본인이라고 하면서 차별을 당한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과 함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 모든 모습이 조선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촌 순의가 사는 마을은 현대적 농법을 사용하여 논밭이 잘 정비되어 있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도 청결하고 '내지(일본) 식이었다. 순의는 후에 만주로 갈 뜻을 밝힌다.

마을로 돌아간 히데아키는 일부 마을 사람들이 만민들에 대한 멸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히데아키는 조카 만세에게, 순의가 사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 운영하는 학동경작전과 수로를 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세는 여기에 크게 감명 받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로와 학동경작전을 만들기 위해 탐험을 한다.

학교 선생인 가네무라가 이 일을 알게 되면서 학교의 선생님, 만주척식회사 사무소, 학교 아이들, 일부 마을 어른들이 힘을 모아 수로를 짓기 시작한다. 마연하²¹⁾로 이어지는 수로의 위치를 고민하는 히데아키에게 그의 아버지는 예전 마연하가 흘렸던 흔적이 남은 땅을 따라 파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수로 공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 남자 아이들이 군인이 되고자 하는 의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어른들은 수로 공사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히데아키의 약혼자 숙희가 조선에서 찾아오고, 병석에 누운 히데아키의 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날 테니 이제야 조상님 볼 날이 선다고 말하고 숨을 거둔다.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찾아온 순의와 만민들도 참석한다. 숙희는 앞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말하고 히데아키는 이에 전율을 느낀다. 중추절이 되자 히데아키는 학교에서 조선인과 만민이 함께 하는 운동회를 연다.

만주척식회사 사무소장인 아와는 히데아키와 숙희에게 이민족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역사적 위인들의 예를 들며 아이들의 장래에 희망을 건다. 히데아키는 숙희에게 봄에는 작은 압록강(관개수로)이 흐를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들

21) 중국이름 马栏河, 말란 강.

을 위한 다리 혹은 비료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줄거리를 살펴보면 크게 ①히데아키와 수풍댐과의 조우 ②조선인들의 실상 제시 ③만주 개척촌의 실상 제시 ④ 히데아키와 아이들의 수로 건설과 벼농사의 계획과 실행 ⑤ 히데아키의 아버지의 장례와 운동회에서 만인과 조선인의 어울림 ⑥ 미래에 온전한 ‘국민’이 될 아이들에 대한 희망 ⑦ 히데아키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압록강’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작품의 서사가 ‘압록강(수풍댐)’으로부터 시작되어 또 다른 작은 ‘압록강(관개수로)’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부분의 ‘압록강’은 히데아키에게 고향(조선)에서의 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 국가의 압도적인 힘을 건축을 통해 실감하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자신이 만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에 임하며 논농사를 시도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식민지에 대한 개척의 범위가 조선에서 만주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본인인 저자가 조선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사를 진행해 나간 것은 수풍댐의 개발로 만주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히데아키라는 인물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그리고 조선에서 다시 만주국으로의 개척의 확산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의 ‘압록강(관개수로)’은 식민지인이 식민자로 변모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압록강 유역이 개발되는 것처럼, 히데아키는 만주국의 관개수로를 만들으로써 농경지를 개척한다. 또한 이 ‘압록강’은 히데아키가 만주국에 터전을 잡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두 ‘압록강’은 모두 식민자의 식민지에 대한 개발과 그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히데아키가 만드는 두 번째 ‘압록강’은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입식을 상징한다.

두 ‘압록강’은 식민지에 대한 개발이 그 주체와 장소를 바꾸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히데아키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입식이 타의에 의해서였다는 점이다. 반면 아래의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히데아키를 ‘국민’의 길로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수풍댐 건설 책임자 타도코로는 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전선(前線)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며 이미 ‘국가주의’를 깊이 체화한 상태로 등장하여 이를 실행하는 인물이다.

“물과의 전쟁이었지. 이 사진을 보게.”

타도코로 씨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오른쪽부터 쇼와 13년, 14년, 15년²²⁾ 순서로 여름 수해의 모습일세. 무서운 급류지. 저번에 모처럼 설치한 우시와쿠(牛柵)²³⁾까지 휩쓸려갔지. 창고까지 떠내려갔어. 원시적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물의 복수라며 머리를 감싼다네. 고개를 움츠리지.”

히데아키가 집중해서 보았더니 하늘로 덩벼드는 듯한 흰 격류는 도저히 물줄기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사진에는 구름이 뭉개 뭉개 솟는 것 같은 급류가 능선과 댐의 독까지도 가리고 있었다.

“중간에 황하(黃河) 댐에 조사를 나간 적이 있지. 그때 기차 안에서 생각했다네. 아직 지나 사변의 초기여서 황하로 가는 기차는 무척 위험해서 운행이 자주 중지됐어. 열 몇 시간이나 적군이 후퇴할 때까지 황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적이 있었지. 주변을 둘러보니 탈선해서 배를 보이고 있는 객차와 짐차가 바퀴를 위로 하고 있었어. 아무튼 불길했지.”

(중략)

“차장과 긴 길을 가는 도중에는 사이가 좋아져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의 일이야. ‘일이라고는 하지만 참 큰일이군요’ ‘그렇죠’ 하면서 차장은 웃었지. ‘열차라는 건 신기해서 위험하다고 다니지 않으면 끝까지 개통되지 않아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무작정 다니다 보면 주민도 점차 협력하고 비적(匪賊)도 멀리 물러갑니다. 필요한 건 서둘러 해내야 돼요. 다니고 싶어, 다니고 싶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이면 길은 따라오는 법이죠” 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들었을 때 우리 사업과 똑같다고 생각했어.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네. 그해 여름 왠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밤에는 그때의 기차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었다네.”²⁴⁾

22) 순서대로 1938년, 1939년, 1940년.

23) “긴물과 제방 등에 충격을 주는 급류와 철포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는 응급책으로서 적합한 통나무에 1m 정도의 길이를 한 로프로 흙 부대를 묶어서 강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과 통나무를 삼각형의 통 모양으로 조합해 강에 가라앉는 와쿠·우시라는 방법(후략)” <https://blog.naver.com/yupark77/157856608>(검색 2026.02.05)

반면 히데아키는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한 탈구(dislocation)²⁵⁾의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타도코로와 차이가 있다. 작품 초반에 히데아키는 고향을 잃은 현실에 관해 “아, 우리들은 쫓겨났다. 대를 이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그 할아버지가 살던 영원하리라 생각하던 땅에서 쫓겨났다. 그런 생각이 어찌해도 떨쳐지지 않았다. 수풍댐은 기분 나쁜 괴물이었다. 떠올리는 것조차 싫었다”²⁶⁾고 회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히데아키가 “국가의 농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풍댐과의 조우로 시작되는 여정이 서사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²⁷⁾

24) 湯淺克衛 著, 白川豊 監修, 2000, 『鴨綠江』, 株式会社ゆまに書房(湯淺克衛, 『鴨綠江』, 東京: 晴南社, 1944.), 65-67쪽.

25) “제국주의 점령의 결과로 일어난 이동,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경험으로 일어난 이동 두 경우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노예제나 구금에 의한 혹은 침략과 정착에 의한 이동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은 경우를 막론하고 알고 있는 장소에서 모르는 장소로의 이동의 결과일 수도 있는 현상이다. 이 용어는 자진해서 ‘고향’인 제국에서 식민지 변방으로 이동한 사람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식민주의의 결과로써 식민지의 **헤게모니적** 실천과 요구로 인해 언어에서 그리고 내러티브와 신화 방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reinvented)’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탈구’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직역하면 ‘집에서 내쫓김 (unhousedness)’이나 ‘집에 있지 않음(not-at-home-ness)’이라는 의미인-그리고 종종 ‘이상한 (uncanny)’이나 ‘이상함(uncanniness)’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하이데거의 용어인 unheimlich나 unheimlichkeit이다.”

Bill Ashcroft-Gareth GriffithsHellen Riffin, 1998,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73p.

26) 湯淺克衛, 앞의 책, 10쪽.

27) 『만선일보』의 강익선이 쓴 수풍댐 여행기에 따르면 수풍댐 건설 부지에서 이주당한 주민들은 약 7만 명에 달했으며 그들은 다른 장소로 재배치되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땅에 대한 보상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여행기에서 전반적으로 과학적 업적의 위대함과 지역 주민 이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랑하는 집과 생계를 버리고 이주단에 합류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변영하는 아시아를 건설하겠다는 국가 정책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삶이 파괴된 것일 뿐이었다. 빈집들은 철거되고, 마을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

정말 슬픈 광경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내 눈앞에는 이주를 위해 길을 떠난 떠돌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광경을 보자, 내 몸은 금세 이상한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강익선, 「수물지를 떠나는 동포여」 『만선일보』, 1940.2.1.)

Aaron Stephen Moor, *Constructing East Asia-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pp.175-176에서 재인용.

그러나 ‘국민화’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히데아키의 여정은 사실 ‘수풍댐’의 앞에서 느끼는 충격을 동반한 무력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인 안내인을 따라서 수풍댐을 견학하는 히데아키는 그 규모에 충격을 받는 한편,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런데 안내인에게 수풍댐이 생기고부터 영하 삼사 십도의 추위에도 압록강의 물이 얼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자연도 점점 변해 간다. 모양뿐 아니라 성질까지… 그렇다면 진보를 멈춘 인간이 점점 낙오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²⁸⁾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의 앞에는 자연마저 변모시키는 위력적인 수풍댐이 상징하는 식민주의·개발주의를 받아들이고 ‘생존’하는 것,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사회 시스템에서의 도태라는 두 가지 선택 지만이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일본에 의한 조선 개발이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 만주 개발로 이어진다는 식민주의의 확산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인공의 ‘자발적’ 국민화의 과정이 만주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해석은 이 소설이 만주로 강제 이주당한 주인공이 식민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주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제국의 개발 담론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해석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는 주인공의 국민화 과정이 사실은 강요된 것임이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압록강』이 상호 모순되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층을 동시에 노출하고 있다고 보았다.

IV. 전도된 승고미의 대상: 수풍댐과 개발지로서의 만주

작품에서 주인공이 조우한 압록강 유역 개발과 그 결과인 수풍댐의 위용은, 압도적 경험이 개인의 정신 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칸트가 『판

28) 湯淺克衛, 앞의 책, 96쪽.

단력 비판』에서 설명하는 ‘송고미’의 개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장에서는 ‘송고미’의 개념을 차용하여 주인공 히데아키의 개발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칸트는 사람이 압도적인 대상, 이를테면 거센 폭풍우나 거대한 폭포를 보았을 때 그것에 압도당해 자신이 기존에 가진 모든 관심을 내려놓고 무관심의 상태로 그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무관심의 상태란 대상이 기존에 가진 의미의 관계망에서 벗어나 그 대상을 인지하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압도적인 광경은 다른 일체의 관심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타자적 경험으로 느껴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압도적 광경은 인간이 기존에 가진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무관심의 상태에 빠지는데 이때 느끼는 미적 감정을 송고의 감정이라고 보았다.²⁹⁾

칸트가 설명하는 송고의 감정에는 쾌의 감정과 불쾌의 감정이 둘 다 존재한다. 자연현상의 엄청난 크기가 인간의 상상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불쾌감과 무력감이 나타나지만, 곧 상상력과 이성이 저절로 일치되기 때문에 쾌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칸트는 송고의 감정이 궁극적 하나의 목적인 세계의 통일적 법칙과 연결해 준다고 보았다.³⁰⁾ 칸트가 설명하는 송고미의 구조에서 인간이 쾌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도 상상도 못하던 것을 자신이 본래 가진 이성³¹⁾을 통해 개념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데아키는 수풍댐의 거대한 규모, 그 건설 부지였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수풍댐의 건설이 압록강의 흐름과 부근의 지형 그리고 자연 현상까지도 바꿨다는 것,³²⁾ 수풍댐 건설로 인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가 형성

29) 강신주, 2016, 「아름다움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칸트 VS 부르디외」,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30) 최인숙, 2024, 「통일적 마음 현상으로서의 미와 송고」, 『칸트』, 살림출판사.

31) “이성은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 능력인 오성을 뛰어넘는 사고 능력으로서 감정, 감정, 오성의 마음을 배후에서 통일하는 능력이며, 이 세계의 근원적 존재의 능력에 유비적으로 생각되는 능력이다. 인간은 감정 및 감정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개는 마음의 분열상을 보이지만(원적 존재로서), 어느 순간 절대적인 이성의 통일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때 인간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송고성을 표출하기도 한다.”(최인숙, 2024, 위의 책)

32) 압록강의 물이 극심한 추위에도 얼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됐다는 사실 등에 크게 압도당한다.

마을을 떠나기 전 그는 유구한 지각작용에 의해 형성된 자연 지형이자 자신들이 오래 터를 잡고 살아온 터전인 압록강의 변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치 못했다. 그러다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수풍댐의 엄청난 규모와 세계적 의의를 듣고 충격에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어서 고향에 도착하자 그는 압록강을 잘라 낸 거대한 댐을 발견하여 경악하고, 개발로 몰려든 사람들로 공장과 사택이 생기는 등 변화해진 고향의 모습에도 충격을 받는다.

수풍댐 건설 담당자 타도코로의 권유로 댐 부지를 견학하게 되면서는 이질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발전소 건물 안을 보게 된다. 부서진 시멘트를 나르는 큰 관으로 서로 연결된 공장들과 발전소 안의 거대한 전기 터빈은 그에게 기술의 힘,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국가의 힘을 느끼게 한다. 발전소 밖에는 많은 언덕들이 있고, 서로 연결된 도로와 철도선을 모터카와 트럭, 화물열차가 오가고 있었다. 부지 안의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보니 댐, 압록강, 선착장, 만주로 통하는 철교, 독의 폭포, 뗏목길인 해자가 보인다. 산 위에서 댐 건설로 만들어진 호수를 보고 히데아키는 고향이 잠긴 것에 주체하기 힘든 슬픔을 느낀다. 이러한 심정은 어린 시절에 때를 쓰며 무력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경험에 빚대어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히데아키는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았는데, 사람이 없다면 이대로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어릴 때 어머니 앞에서 울 때, 데려가려 해도 주저앉아 결국 달라는 걸 줄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버틸 때처럼 발을 버둥거리면서 울고 싶었다. 수증기가 불타는 것 같은 한여름의 태양 아래서 평평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³³⁾

거대한 압록강변 개발의 규모와 수풍댐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용을 마주하고 그가 느낀 것은 어린 아이로 돌아간 듯한 무력감과 강렬한 거부감이었다. 그러나

33) 湯淺克衛, 앞의 책, 91쪽.

결국 개인의 힘으로 멈출 수 없는 규모의 개발과 이미 건설된 수풍댐을 부정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 수몰된 고향의 존재와 함께 친구인 ‘권’과 ‘숙희’를 비롯한 조선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변화한 환경 아래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급기야 댐의 건설의 자연의 성질까지 바꾼다는 안내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히데아키는 더는 변화를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압도적 대상인 압록강 유역 개발(그리고 수풍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여 개념화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개념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만주 개척촌을 자신의 새로운 터전으로 삼으며 식민지에 대한 개발주의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그가 국가에 승인된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과 난민 등은 먼저 고향을 상실하게 되며 그들을 받아주는 다른 국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고향을 찾을 수조차 없다고 설명한다. 아렌트는 다음으로 그들은 정부 차원의 보호를 상실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³⁴⁾

이 작품에서 주인공 히데아키는 아렌트가 말하는, 있을 곳 자체가 사라진 고향 상실과 정부 차원의 보호를 상실한 수용소의 유대인 혹은 난민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의 고향이 개발에 의해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개척촌으로 옮겨간 것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는 처벌당하거나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탈구 개념은 제국주의적 움직임에 의해 사람이 자신이 아는 곳에서 모르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의미망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의미망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무한정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도리어 관계망 속에서만

34) 한나 아렌트, 2006,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존재하는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는 아렌트가 말하는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한 어떤 법도 없다고 언급한 부분과 유사하다. 만일 히데아키가 고향을 상실한 슬픔에 사로잡혀 개발주의에 대한 반감을 유지한다면 그는 자신의 개척촌 생활에서 어떤 사회적 승인도 받지 못하는 주체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압도적 대상인 개발주의와 맞닥뜨렸을 때,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핵심적인 정신적 능력인 '이성'으로 이를 개념화하지 못하고 개발주의가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일부가 되는 길을 택한다.³⁵⁾ 히데아키는 수풍댐을 개념화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풍댐은 일종의 '전도된 숭고미'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서 전도란 강요로 인한 결과가 자율적인 정신활동의 결과인 것처럼 의미화되는 것을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히데아키의 고향을 잃은 괴로움은 그가 고향에 돌아온 후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억압되었을 뿐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자의 의도 때문에 삽입되었다기보다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의 개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소설의 특성과, 소설에서 전면화하고자하는 하는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히데아키는 친구 권의 송별회에서 타도코로의 연설에 감명을 받아, 후에 수풍댐에서 그를 만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쫓겨났다는 의식을 반성하고 나라를 위해 논 개간을 시도해 볼 것'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 후에 만난 일본인 댐 안내인이 조선인으로서 훌륭한 일본인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히데아키에게 일본인 가운데도 아직 '자각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안내인은 일본과 조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지배구조를 없애는 것처럼 취급한 것이다. 그러자 히데아키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기분'을 느낀다.

35) 칸트는 자연이나 인물이 아닌 국가나 건축물 등을 숭고미를 느낄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인간이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신의 정신으로 개념화한다는 '숭고미'의 작동 구조를 빌려 주인공 히데아키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했다.

한편 안내인은 풍경을 보기 위해 히데아키와 산을 오르며 수풍댐 건설은 국가적 대사업이고 공습 대상이기 때문에 경비가 삼엄하지만 히데아키와 같은 “국가의 농민”은 이 사업을 알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한다. 히데아키는 “국가의 농민”이라는 말에 전율을 느끼지만 산 위에서 댐 건설로 고향이 잠기며 만들어진 호수가 보이면서 다시 고향을 잃은 슬픔에 잠긴다. 내려가는 길에 히데아키는 안내인에게 고향이 호수에 잠긴 괴로움을 하소연하지만, 안내인은 자기 고향에서도 다른 마을이 해일에 쓸려간 일이 있는데, 그에 비해 조선은 천재지변이 없어 좋다고 말한다. 히데아키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외로움을 느낀다. 안내인이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자연 재해와, 국가 권력에 의해 고향을 잃은 것을 같은 층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압록강 유역의 개발과 수풍댐 건설은 표면적으로 히데아키에게 개발주의를 내면화하고 고향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동시에 히데아키의 심경의 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또한 고향을 잃은 고통 역시 표면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처리되지만, 고통이 인물의 내면에서 단지 억압되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는 작품에서 전면화된 식민주의·개발주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주인공의 자발적 국민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와 인물 형상의 개연성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식민지인의 차별에 대한 주인공의 의식과 식민주의적 개발에 대한 반감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결과로 보인다.

고향에서 수풍댐을 보고 사촌 순의를 만나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우한 조선의 면면이 히데아키의 ‘국민화’를 이루는 장소였다면, 만주국에 위치한 만철 연선의 개척촌은 히데아키가 ‘국민화’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만주는 사회적·역사적 관계가 거의 지워진 개척을 기다리는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공간이다. 농지로 바뀐 만주의 드넓은 대지, 대지에서 나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확량, 논으로 개간될 것을 기다리는 습지 등으로 표현되는 만주의 묘사는 당대의 ‘만주 판타지’를 보여준다.

작품에서 식민주의적 상상에 의해 구성되어 개발의 대상으로 환원된 만주의

자연은 또 하나의 '전도된 송고미'의 대상이 된다. 히데아키는 개척촌 주변의 광활한 농지와 넓은 습지에 경탄을 느끼는 한편 이를 개척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압도적 자연을 마주한 개인이 이를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송고미 개념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개념화에는 이성이라는 본질적인 인간 정신이 발휘되지 않는다. 개척 대상이라는 그의 만주의 개념화는 식민주의와 개발주의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는 히데아키가 선택의 여지 없이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히데아키는 만주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자발적인' 개간수로 공사에 힘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민화가 심화되는 과정이면서, 다른 층위에서는 그가 조선에서 느낀 '무기력함'을 '주체적' 활동으로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주체성'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벽 안에 갇혀 있다. 마을에서 가까운 만주척식회사 사무소, 만철 철도, 산기슭 앞에서 펄럭이는 일장기와 만주국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인공이 수풍댐과 만주 자연에서 느끼는 '전도된 송고미'는 주인공의 국민화 과정을 구성하면서 작품에서 전면화하고자 했던 식민주의·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다. 한편 이 이데올로기들은 서사구조와 인물의 개연성이라는 소설의 특징과 충돌하면서 의도치 않게 작품이 형상화하고자 했던 식민주의·개발주의의 모순들을 드러낸다.

V. 마치며

본고의 목적은 유아사 가쓰에의 『압록강』이 어떻게 식민주의·개발주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 모순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된 양상은 그의 전작들에서도 보이지만, 식민지 말기를 맞으며 식민주의와 개발주의적 양상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의 분석을 위해 작품의 '식민주의의 개발주의적 확산'이라는 주제를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수풍댐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수풍댐은 일본이 건설을 통해 정치, 문화, 군사, 경제 부분까지도 통하려는 시각 아래에서 건축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조선 내에서는 이것이 기술적 성공이자 국가(일본)의 성공으로 표상되었으며, 수풍댐은 국가적 기념비로 여겨지면서 중요 인사의 시찰 코스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3장에서는 주인공이 수풍댐을 조우한 후 국민화를 내재화하려는 것은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혔다. 그런 관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식민주의의 확산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제로 이주당한 주인공이 가치 있는 주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제국의 개발 담론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칸트의 숭고미 개념을 소개하고, 주인공이 수풍댐과 만주의 자연에서 느끼는 것이 ‘전도된 숭고미’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주인공이 수풍댐과, 만주 자연에서 각각 느끼는 ‘전도된 숭고미’는 주인공의 국민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들은 서사구조와 인물의 개연성이라는 소설의 특징과 충돌하면서 의도치 않게 작품이 형상화하고자 했던 식민주의·개발주의의 모순들을 드러낸다.

본고는 연구가 많지 않은 『압록강』 유아사 가쓰에의 식민지 말기 작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핵심적 소재들인 개척, 이식, 경제 구조적 모순, 차별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압록강』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는 밝혔다. 그러나 식민지 말기 시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湯淺克衛 著, 白川豊 監修, 2000, 『鴨綠江』, 株式会社ゆまに書房(湯淺克衛, 『鴨綠江』, 東京: 晴南社, 1944)
- 강신주, 2016, 「아름다움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칸트 VS 부르디외」, 『철학 VS 철학』, 오월의 봄
- 권승혁, 2006, 「유아사 가쓰에의 조선인식과 내선일체지향 연구: 조선, 조선인이 등장하는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3, 「아시아 개발주의 원(原) 풍경: 수풍댐 이미지」, 『한림일본학』 22,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신승모, 2000,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소설에 나타난 일본인 이주민의 정체성」, 『재조 일본인 2세의 문학과 정체성』, 아연출판부
- 유지혜, 2025, 「유아사 가쓰에의 일제말기 국책과 주체성의 변화: 『편지』, 『청동』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75,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
- 전상숙, 2010, 「우가키충독의 내선융화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정책: 우가키 조선총독정치의 지배정책사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현상과 인식』 34(4)
- 최인숙, 2024, 「통일적 마음 현상으로서의 미와 숭고」, 『칸트』, 살림출판사
- 한나 아렌트, 2006, 「국민국가의 몰락과 인권의 종말」,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 湯淺克衛, 1995, 『カンナニ』, インパクト
- Bill Ashcroft-Gareth Griffiths-Hellen Riffin, 1998,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Aaron Stephen Moor, 2013, *Constructing East Asia-Technology, Ideology, and Empire in Japan's Wartime Era 1931-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 「나이야가라彷彿-水豊“땀”降雨로 因하여 壯觀」, 『毎日新報』, 1941년 06월 10일, 3면
- 「兩院視察團 水豊댐 視察」, 『毎日新報』, 1944년 12월 11일, 1면
- 「水豊『땀』을視察 總督平北巡視第三日」, 『毎日新報』, 1944년 10월 07일, 1면
- 「水豊の輝く發電式, 内鮮滿關係官民を招待, 来る廿八日現地で行」, 『朝鮮新聞』, 1941년 09월 06일, 4면
- 「皇帝陛下水豊發電所御視察-宮内府發表」, 『毎日新報』, 1943년 05월 06일, 1면
- Yupark77, 「환경」, 네이버 블로그, 2012.05.17, <https://blog.naver.com/yupark77/157856608>(2026.02.05)

■ Abstract ■

The Dual Significance of the Colonial Development
Narrative in the Yuasa Katsue's *Yalu River*
: The Inverted Sublime and Conditional Autonomy

Woo, Jungduk(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Yuasa Katsue's novel *Yalu River* (鴨綠江) represents both colonialism and developmentalism while simultaneously revealing their internal contradictions. To this end, it focuses on the Sup'ung Dam, which symbolically illustrates the developmentalist expansion of colonialism within the work.

First,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up'ung Dam was constructed under an imperial vision aimed at political, cultural, military, and economic integration. In line with imperial ideologies such as *naisen ittai* (Japan-Korea unity) and *gozoku kyōwa* (Five Races Under One Union), the dam was represented in colonial Korea as a monument to national achievement. It further analyzes how the protagonist internalizes national subject formation after encountering the dam and how this process served as an inevitable strategy for securing social recognition in the society of that time.

Through the concept of the "inverted sublime" presented in the novel, the study explains the protagonist's process of national subject formation while showing that this ideological framework comes into tension with the narrative structure and character plausibility, thereby exposing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colonialism and developmentalism.

Whil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mited scholarship on *Yalu River* by shedding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late colonial literature through this novel,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broader transformations in Yuasa Katsue's works during this period is still needed.

Key words: *Yalu River* (鴨綠江), national subject formation, representations of Manchuria, Sup'ung Dam, colonialism, *naisen ittai*, *gozoku kyōwa*